

# 斯盧國 형성 전후의 慶州 \*

李清圭 · 朴姿妍\*\*

## 목 차

1. 머 리 말
2. 斯盧國의 공간적 이해
3. 斯盧國 형성 이전 단계
4. 斯盧國 형성 이후 단계
5. 결 론

## 1. 머 리 말

신라는 대략 1천년동안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중심지는 내내 경주권을 벗어난 적이 없다. 그러나 斯盧國이 형성되는 신라 초기단계에 형성된 國畝의 중심적 위치와 공간적 범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입증된 것이 아닌바, 고고학 자료를 통해서 이를 검토하고자 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이에 필요한 고고학자료로서는 대체로 청동기시대에서 原三國時代에 이르기까지 생전의 생활을 직접 반영한 주거지 혹은 취락자료와 간접적으로 반영한 무덤자료가 되겠다. 그러나 취락자료가 지금까지 제대로 조사 수집되지 않아, 주된 자료로서 활용할 수 밖에 없는 것은 무덤자료이다.

무덤에 관련한 자료 중에서도 國의 공간을 접근할 때 중점적으로 검토될 것은 首長級의 무덤이다. 首長 무덤을 통해서 國이라는 복합사회의 중심지 동향을 파악할 수 있고, 무덤군의 위치를 통하여 그 당시의 마을 유적의 立地와 분포상을 알아 볼 수 있는 것이다.

본 주제를 다룸에 있어 문헌자료와 고고학자료를 토대로 우선 斯盧國의 개념을 검토하고, 斯盧國의 무대인 경주권에 대한 지리적 검토도 아울러 실시하고자 한다. 그런 다음 斯盧國 형

\* 이 논문은 2000년도 두뇌 한국 21사업 핵심분야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 영남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 영남대학교 문화인류학과 조교

성 이전단계는 묘제를 중심으로 1) 지석묘 2) 積石木棺墓 단계로 각각 나누고, 형성 이후는 1) 목관묘 2) 木槨墓 단계로 각각 나누어 살펴졌다.

## 2. 斯盧國의 공간적 이해

### 1) 斯盧國의 성격

斯盧國에 대해 살펴볼 때, 무엇보다 斯盧 대신 新羅라는 명칭이 언제부터 사용되었는가를 보는 것이 필요하다. 三國史記 기록에서는 신라라는 명칭이 6세기대 智證王 때에 처음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5세기 중엽경에 조성된 中原 고구려비에 신라라는 명칭이 보이므로 적어도 5세기대에는 신라라는 명칭을 사용했음이 인정된다. 고고학계에서는 기원 4세기대 高塚古墳이 발달하는 것을 근거로 그 이전을 斯盧國, 그 이후를 신라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李熙濬 1997) 한편에서는 기원전 1세기부터 신라로 보고, 그 직후를 신라 형성기 혹은 早期로 하고 있어 다소 그 시기구분과 개념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崔秉鉉 1992) 필자는 일단 麻立干期 高塚古墳 이전단계를 斯盧國 단계로 이해하지만, 신라라는 명칭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듯이 광의적으로 받아들인다면 동 단계를 신라 전기로 파악할 수 있다고 본다.

여하튼 그동안 경주지역을 무대로 한 斯盧國은 대체로 기원전 1세기대에 처음 형성되었다는 의견으로 모아진다.(李賢惠 1984; 李鍾旭 1982; 朱甫暎 1998; 崔秉鉉 1992) 이는 삼국사기에 朴赫居世가 斯盧 6村의 촌장으로부터 왕으로 추대되었다고 하는 신화적 기사를 신빙하는 입장에서는 물론이거니와(李鍾旭 1982; 李炯佑 2000)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고고학적인 입장에서 이 단계에 경주에 다량의 청동기와 철기를 부장한 國의 우두머리급 무덤이 확인되기 때문이다.(李賢惠 1984; 權五榮 1996; 李盛周 1999; 李清圭 1999) 斯盧 6村을 실재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그 위치를 比定하여 그 6村의 지리적 범위를 斯盧國의 공간으로 이해하는 바, 이에 대해서는 경주와 그 주변으로 설명하는 의견이 압도적이다. 한편 문헌사학계에서는 6村관계 기록은 후대에 6部 관계기사가 소급된 것으로 기원전 6村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견해도 있다.(全德在 1995; 姜鍾薰 2000)

또한 기원 3세기경과 기원전 1세기경의 斯盧國의 공간적 범위가 일정하다고 보는 견해가 암묵적으로 통하고 있는데 이는 그자체가 증명되어야할 문제인 것이다. 오히려 초기 國과 수

백년 지난후의 國의 공간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되는 바이다. 또는 國의 일반적인 개념은 3세기 기록에서 취하지만, 이를 입증하는데는 기원전 1세기대 고고학 자료로 설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초기부터 통합한 國의 중심 혹은 國邑이 오늘날 경주권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月城과 大陵園 지역이라고 볼만한 고고학적 증거는 없는 것이다. 이 점은 초기 國의 공간적 범위가 낮은 단계에 이르기까지 일정하다고 보는 의견이 증명되지 않은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일반적으로 國이라는 개념을 논의함에 있어 우선 三國志 등 중국 문헌 기록에 나오는 국의 개념, 그리고 삼국사기에 신라에 편입된 國의 개념으로 크게 二分하여 살필 수 있다.

광의적으로 정의한다고 하면 일정한 우두머리가 다스리는 지역집단을 國이라고 할 수 있다.(權五榮 1996) 또한 國이라 하면 그 안에는 中心邑落, 또는 國邑이 있고 그 하위집단으로서 邑落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盧重國 1991) 학자에 따라서는 國에는 國邑과 함께 別邑이 별도로 있고, 다음 邑落이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金杜珍 1985).

國의 首長에 대한 기록에도 臣智, 王, 巨帥 등이 있으며, 國의 크기에 따라서 臣智, 邑借 등이 있다. 따라서 같은 國의 우두머리라 할지라도 그 성격과 속한 지역집단의 규모와 사회적 발전 수준에는 일정한 차이가 있음이 그 명칭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확인된다. 인류학적으로는 우두머리에 대한 개념을 보면 부족사회의 Bigman이 있는가 하면 Chiefdoms의 Chieftain, 그리고 State의 King 등이 있다. 특히 小國에 대해서는 Chiefdoms와 State 어느 것으로 규정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견이 크게 대립되어 있다.(金貞培 1986·1997; 李鍾旭 1982·1999)

지역에 따라서 國이 형성된 역사적, 문화적 배경에 큰 차이가 있으므로, 같은 시기라 할지라도 고구려, 부여지역과 三韓의 國을 동일하다고 보는 것은 곤란하다. 또한 당대 기록이 전하지 않는 기원전 1세기의 國과 기원후 3세기경의 三國志 기록에 언급된 國, 그리고 후대 삼국사기에 기록된 國을 동일하게 볼 수 없음을 물론이다. 실제로 문헌사학자들도 기원전 1세기부터 기원후 3세기까지 소국형성기에서부터 소국연맹, 소국 복속단계까지 혹은 소국형성에서 연맹까지의 정치사회적 변천과정이 있었음을 지적하고 있다.(李賢惠 1982; 李鍾旭 1981)

지역집단의 중심지를 가름하는데 결정적인 자료가 首長墓인데, 각 시기별로 각기 다른 國이나 지역의 首長무덤을 고고학적으로 접근함에 가장 큰 문제는 무덤의 규모와 副葬品の 수준이 다른 무덤에 비해 탁월하다 하더라도 國 혹은 邑落 어느 수준의 지역집단의 우두머리인지 입증하는 문제이다.

이에 대해서는 우선 기원전 1세기 이전단계의 청동기부장묘와 관련한 논의로서, 馬韓지역에

서 異形銅器와 多鈕鏡을 부장한 積石木棺墓의 被葬者를 國邑의 主帥이라 하는 의견이 주목된다.(金鐘一 1993) 또한 중국 동북지방에서 한반도 전역에 이르기까지 기원전 1세기 이전 단계에 多鈕銅鏡 副葬墓가 國의 우두머리 무덤일 가능성이 많다는 주장도 있다.(李清圭 2000)

기원전 1세기 이후의 首長墓로서 무덤에 부장된 印章을 標識으로 삼아 大國의 臣智, 小國의 邑借, 邑落의 巨帥로 구분하는 의견도 있다.(文昌魯 1997) 평양 정백동 1호 무덤에 피장자가 夫租蕤君임을 표시한 銀製 인장이 부장된 것으로 보아, 銀印을 小國의 長 정도로 본다. 그리고 늦은 단계의 것이지만, 경북 영일과 상주에 출토하였다고 하는 3세기대 伯長의 銅印을 통해서 동인은 邑落의 우두머리, 일본 倭王 卑彌乎가 받았다고 하는 金印을 통해 금인은 대국의 臣智를 각각 상징하는 증거물로 추정하는 것이다.

夫租蕤君墓에는 세형동검을 비롯한 철제무기와 車馬具 부속품이 부장되었는데, 이에 버금가는 부장품 수준은 비슷한 시기에 경주권에서는 입실리 무덤의 예가 있다. 각기 다른 역사적 배경을 고려하여야 하지만 그러한 입실리 무덤을 통하여 경주지역에 小國의 首長 출현 혹은 國의 형성을 가늠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받을 수도 있다.

또한 기원 1세기대로 편년되고, 板狀鐵斧 70매와 수점의 세형동검, 漢式仿製鏡 등이 부장된 사라리 130호 무덤을 斯盧國의 王일 가능성이 높으며(權五榮 1996) 板狀鐵斧 100매가 부장된 기원 3세기경의 김해 대성동 29호묘 무덤을 가야지역의 왕급 무덤으로 해석한 경우도 주목된다. (李海蓮 1993)

일정수준의 부장품을 가진 무덤을 國의 우두머리라고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만, 고고학적 자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일정 집단의 우두머리의 성격을 파악하고자 하는 접근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기원전 1세기대로부터 기원 3세기대에 걸쳐 지배층의 성격에 큰 변화가 있었음을 銅鏡과 철제품 등의 부장품을 통해서 접근하기도 하고,(李清圭 1999) 부장품을 통해서 무덤이 보다 多層化되는 위계화과정을 통하여 사회적 변화와 首長의 성격을 고고학적으로 접근한 의견도 접근의 틀을 더욱 발전시키면 그 신뢰도를 더욱 높힐 수 있다고 생각된다.(崔鍾圭 1995)

## 2) 경주의 지리적 구분(지도1)

지금까지 신라의 초기단계에 해당하는 斯盧國의 공간적 범위에 대해서는 삼국사기에 나오는 6村 혹은 6部の 지리적 범위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유추되었을 뿐이다. 그러나 그 6부의 지

리적 범위에 대해서 학자들간에 의견이 엇갈리고, 그 공간적 범위가 곧바로 초기의 斯盧國 당시 그대로라고 보기 어렵다.

斯盧國의 지리적 범위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기도 어렵고 실제로 그렇게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 현재로서는 일단 신라 도읍지로서 오늘날의 경주권을 중심으로 삼고, 대체적인 지리적 경계로서 가름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함으로써 초기 斯盧國과 신라 고대국가 단계의 도읍지 경주와 연계하여 그 지역의 문화변천과정을 살필 수 있을 것이다. 보다 장기적으로는 중세와 현대에 이르는 도시 경주와 그 주변의 지역사회의 변천과정을 살피는데도 유리하다.

우선 경주 지역권을 살피는데 그 일차적인 중심지는 大陵園과 月城이 자리잡고 있는 서천과 남천, 북천 사이가 주목된다. 이렇게 세 하천으로 둘러싸인 고대 王京의 지리적 범위를 경주지역의 1차 중심지로서 大陵園을 중심으로 반경 2Km 내외가 된다. 다음으로 경주 도시의 외곽을 싸고 도는 선도산, 남산의 정상, 명활산, 소금강을 포괄할 경우 반경 3Km 내외가 되는데 이를 2차 중심지로 규정하고자 한다.

경주 중심권은 세 강의 支流로 둘러 싸이는 저지대로 이루어졌지만, 그 중심지 바깥으로는 하천변을 따라 길게 이어지는 산간계곡의 대지가 형성되어 있다. 그리하여 남천이 이어지는 울산방면과 형산강 상류로 계속되는 언양방면의 산간계곡, 그리고 서쪽으로 대천으로 이어지는 영천방면, 북쪽으로 형산강 하류로 이어지는 안강방면의 곡간을 경주권 주변의 지리적 공간으로 규정할 수 있다.

경주권은 기본적으로 주변지역과의 관계에서 길목이 되거나 단절이 되는 結節 지점을 그 경계로 삼을 수 밖에 없다. 그 경계는 대체로 곡간이 좁아지거나 곡간 사이나 인접한 곳에 큰 산이 있는 지점이 된다. 우선 울산 방면은 關門城이 있는 곳으로 이 지역은 서쪽에 천마산, 동쪽에 삼태봉이 있는데, 곡간 자체는 더 남쪽으로 연결되어 있다. 서쪽 영천 방면은 대천 상류 쪽으로 계속가면 서면에 고개가 있어 영천과 경계를 이룬다. 북쪽 포항방면으로는 형산과 재산이 가로막는 지점이 그 경계가 될 것이고, 안강 방면으로는 용산이 그 경계가 된다. 대체로 행정구역상 현재의 경주시와 그 지리적 범위가 일치하는데 다만 토함산 이동의 동해안 지역은 제외가 된다. 대체로 月城을 중심으로 반경 15km의 거리가 된다.

요약해서 말하면 경주 중심권은 月城을 중심으로 3km 반경이내, 경주 주변권을 포함한 경주권은 반경 15km가 되며, 방사상으로 뻗어있는 곡간지대는 크게 울산방면의 동남부권, 언양방면의 남부권, 안강방면의 북부권, 그리고 영천방면의 서부권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 볼 필요가 있다.

### 3. 斯盧國 형성 이전단계

#### 1) I단계(표1; 지도 4~6, 그림1)

필자는 무문토기를 표지로 한 남한지방의 무문토기시대를 초, 전, 중, 후, 말기로 구분한 바 있다(李清圭 1988). 전, 중, 후기의 3시기구분론(藤口健二 1993; 安在皓 1990; 宋滿榮 1995; 李弘鍾 1996)과 다른 점이 두가지가 있다. 첫째는 초기와 말기 단계를 설정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전시대 혹은 다음 시대의 문화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단계를 고려한 것이다. 초기는 청동기가 보급되지 않은 단계가 되고, 말기는 철기와 陶器(瓦質土器)가 유입된 단계가 된다.

다음 다른 점은 각 단계에 남한 전지역이 동시기에 다음 단계의 문화로 移行한다고 보지 않고, 지역마다 각기 그 전개과정에 차이가 난다고 보는 것이다. 그리하여 지역에 따라서는 중기의 전형적인 송국리식토기가 성행하지만 또 다른 지역에는 전단계의 공렬토기가 지속될 수 있으며, 지역에 따라서는 후기단계의 점토띠토기가 보급되지 않거나 극히 미약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경주는 기본적으로 영남지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낙동강유역과는 거리가 떨어진 동해안권, 지금까지 발굴조사된 전기 무문토기는 공렬토기 뿐으로, 경남지역과 낙동강유역인 금호강변에서는 확인되는 송국리식토기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경주 인근의 대구 서변동(영남문화재연구원 1999)과 동천동(영남문화재연구원 1998)에서는 송국리식주거지와 무문토기가 확인되고 있다. 경남의 사천 이금동(경남고고학연구소 1998) 이나 진주 남강지역(동아대박물관 1999)에서도 전형적인 송국리형문화가 확인되고 있다.

경주를 포함한 동해안 지역에서는 원래 있었지만 아직 조사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유입되지 않고 전기의 무문토기문화가 지속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정확하게 말하면 절대연대상으로는 중기에 속하지만, 그 문화는 전기단계의 전통이 지속된다는 것이다.

최근에 조사된 진주 남강댐유적에서 조사된 바에 따르면 이 지역에서 발굴조사된 지석묘는 대체로 중기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인접한 경남 사천 이금동이나 전북 용담댐 수몰 지역에서 확인된 지석묘유적 또한 전형적인 송국리식토기단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것이다.(전북대박물관 2000) 이러한 맥락으로 볼 때 지금까지 발굴조사된 한반도 남부 지방의 지석묘 유적은 그 대부분이 중기에 속할 가능성이 있다. 마찬가지로 경주에서 확인되는 지석묘

가 전기에 속하는 것이 있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 상당한 부분은 중기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지석묘와 주거지는 경남 사천 이금동, 산청 상촌리(부산시립박물관 1999)나 경북 김천 송죽리(曹永鉉 1993) 등지에서 보면 거의 동일 구역에 위치하는 것이 분명하다. 경주 곡간지대에 일정한 거리마다 지석묘가 분포하는 것을 볼 때, 먼 거리에 지석묘를 축조할 경우 그 소속이 애매하여지므로, 마을 유적에서 멀리 떨어진 지점에 지석묘가 있는 경우를 상정하기 어렵다.

한편으로 지석묘가 축조하는 위치는 기본적으로 지석묘 上石 채취 운반과 관계가 있어, 지석묘가 산기슭에 근접한 이유는 일단 이에서 찾아야 한다. 그리고 그 지석묘 위치는 일정집단의 공간구역을 표시하거나 상징하는 지점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경주권에서의 지석묘와 주거지, 유물산포지의 분포지도를 보면(지도2-5) 울산, 건천, 언양, 안강 방면 등의 경주권 주변지역에 산재하여 있는 반면에 경주 중심지에서는 그렇지 않다. 특히 남천, 북천, 서천 내의 1차 중심지에 거의 없는 바, 그 이유는 크게 두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첫째는 이 지역에 원래 지석묘가 분포하여 있는데, 후대에 도읍지로 발전하면서 파괴되었다고 보는 것이다.(李炯佑 2000) 두 번째는 이 지역에 주민집단이 활동하기 불리한 지리적 여건을 갖고 있기 때문으로 이 일대에 큰 마을이 들어서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은 어느 쪽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특별히 이 지역에 지석묘가 전혀 축조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이 지역이 하천이 범람하는 상습지역이라면 큰 마을집단이 들어서거나 대규모 지석묘군이 자리잡기 어려웠을 것이다. 지석묘가 분포하는 구역이 대체로 신천변의 자연제방이라는 대구의 예로 보아, 그러한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황상일의 1999)

한편으로 김천 송죽리나 진주 남강, 전남 승주 보성강의 대곡리유적(서울대박물관 1987) 등에서 보듯이 하천 범람원 지역에도 주거지와 지석묘가 축조되고 있어 전혀 이 지역에 지석묘나 주거지가 축조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분명한 것은 지석묘사회 단계에 서천, 남천, 북천으로 둘러싸인 경주 중심권에 다른 주변지역에 비해 탁월한 중심취락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적어도 고고학적으로는 이 구역에 안강, 울산, 건천 방면등의 곡간지역보다 우월한 중심취락이 형성되었다는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다.

지석묘를 축조하는 집단은 기본적으로 일정지역의 집단 구성원을 동원할 만큼의 결속력을 가진 사회적 성격을 띠고 있다. 지석묘축조집단의 단위취락은 현재까지 조사된 바로는 50여기 이상을 넘지 못하고 있는 바, 울산 무거동, 진주 남강 등의 발굴조사를 통해서 그 주변에는 발

과 논외 경작지가 있는데, 이들 경작지가 마을의 입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되겠다.

무문토기 중기 이전에 飲用水를 취하는 우물이 있음이 최근에 충남 논산 마전리유적의 발굴조사를 통해서 확인된 바 있다.(고려대 매장문화재연구소 1999) 그 대부분의 음용수는 하천 지류변에서 취할 것으로 추정되는 바, 농경과 용수조건이 유리한 하천변의 완만한 구릉과 평지지역에 대부분의 마을이 들어섰을 것이다.(金鉉俊 1996) 실제로 경주일대에서 월산리(국립 경주문화재연구소 1999), 울산 봉계리(영남대박물관 1999) 등지의 발굴조사에 따르면 곡간지대의 완만한 구릉지역과 낮은 저지대에 분포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三國史記에 斯盧 6村이 山谷에 분산거주하고 있으며, 三國志 魏志 東夷傳에 東濊에서는 산간에 邑落이 있다고 하는 기록이 전한다. 이를 통하여 경주 주변의 하천 곡간지대에 각각 邑落이 들어섰으며, 경주 주변의 산간 계곡에 지석묘가 밀집분포하고 있으므로, 六村 사회가 邑落이고, 지석묘 축조집단이라고 추정하는 것이고, 문헌기록에 나오는 邑落이 이러한 지석묘사회에 대응된다고 이해되고 있다.(李鍾旭 1982; 金炳坤 2000)

邑落은 기본적으로 작은 마을과 이들 마을을 아우르는 중심마을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한다.(權五榮 1995) 邑落이라 하면 중심취락이 있고 주변에 여러 취락이 있는 지역단위를 말한다. 그러나 지석묘가 분포하는 산곡 공간이 邑落의 지리적 범위로는 이해될지 몰라도 그 중심적 취락의 존재를 추정할만한 충분한 근거자료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적어도 지석묘 초기 단계인 기원전 7-4세기경에 邑落사회를 이루었다고 볼만한 상황적 증거가 경주에서 아직 확보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중심취락의 존재가 보다 분명한 것은 다음 단계일 가능성이 높다.

## 2) II단계

기원전 4-2세기 이후 무문토기 후기단계에 이르면 남한지방에는 새로운 점토띠토기·세형동점문화가 확산되는데, 그와 함께 기본적으로 논농사가 남한 전지역에 발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논농사는 최근의 충남과 경남 울산 무거동 유적의 발굴성과를 보아 이미 무문토기 전기 단계에 실시되었으며, 중기에 남부지방까지 널리 보급되고 나아가 후기의 점토띠토기문화단계에 더욱 발전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점토띠토기단계의 마을 유적은 영남권은 물론 남한 전역에서 제대로 조사된 예가 거의 없다. 그러나 일본의 九州지방에서는 이다츠케(板付) 유적 등에서 점토띠토기를 비롯한 한국계 유물과 함께 마을 전체는 물론 무덤과 논유적 일체가 조사된 바 있어 이를 통하여 동 문화가



건너간 것으로 보이는 한반도 남부지방의 사정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논농사는 기본적으로 집약적 농업방식의 성격을 띄므로 보다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다. 논농사 등의 농경을 주된 식량획득방식으로 채택하면서 상대적으로 지식묘 축조와 같이 많은 노동력이 투입되는 비생산적인 작업을 점차 하지 않게 된다.(李松來 1999) 한편으로 그러한 농업공동체의 결속을 다지기 위한 의례행사가 공식적으로 치루어지는 경향이 높아지고, 나아가 의례를 주관하는 祭司長이 출현하게 되는 것이다.

점토띠토기문화를 외래계 문화로 규정하고 遼河 유역에서 시작되었다고 보는 의견이 압도적이다.(李健茂 1995; 朴淳發 1996; 李清圭 2000; 朴辰一 2000) 그리고 한반도에 처음 유입된 것은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충남지방으로, 영남 혹은 경주의 점토띠토기는 서남한 혹은 중부지방에서 유입되었다고 이해된다. 경주지역에서도 중심을 벗어난 주변권인 천군리와 금장리(서울대박물관 1999)에서 각각 이르고 늦은 형식의 점토띠토기가 확인된 바 있다. 최근에 영천방면의 주변권인 사라리 나왕대유적(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2000)에서도 조사된 바 있다.

이들 외래계 토기문화가 전면적으로 앞선 단계의 토기문화를 구축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경주권에 있었던 전단계의 무문토기 문화가 지속되었을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다만 외래계 문화와 함께 세형동검을 표지로 한 청동기문화의 유입으로 말미암은 新舊 문화의 갈등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점토띠토기 유적의 상당수가 高地性 지역에 위치하는 것은 한강유역과 충남서해안지방에서도 이미 확인된 바 있는데, 영남지역에서도 최근에 발굴조사된 상주 병성동(경북문화재연구원 2000)과 이부곡토성(경북문화재연구원 1999) 등지에서 비슷한 양상임이 확인된 바 있다. 이러한 高地性 취락의 존재가 집단간의 긴장과 갈등을 간접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되는데,(權五榮 1996) 소속 집단간의 갈등을 조정하거나 다른 집단과의 분쟁에 대적하기 위한 지역집단의 우두머리 역할이 보다 증대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보다 역할이 증대된 우두머리는 결국 문헌기록에 등장하는 國의 臣智, 畝借 등으로 표현되며, 이들이 농경과 관련된 祭儀行事를 주관도 함으로써 그들은 司祭王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權五榮 1996; 徐榮大 1994)

필자는 國의 초기단계의 이러한 司祭王의 우두머리가 문헌 무덤이 多鈕鏡副葬墓라고 추정할 바 있는데,(李清圭 2000) 기원전 2세기경 이전의 그러한 國의 首長 무덤은 경주권에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이 단계에 國 수준의 지역집단이 본격적으로 형성되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미 전단계 지식묘사회부터 각 谷間에 크고 작은 마을이 많이 들어서고, 대내적인 농업경

영이나 대외적인 갈등에 대처하기 위해 마을집단간의 결속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발굴조사를 통해서 확인은 되지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결속을 주도하는 중심 취락이 존재하였을 것으로 짐작되는 바, 앞서 지정한 여러 정황으로 적어도 邑落 수준 이상의 지역집단은 경주권에 분명히 형성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지석묘사회에 대응시켰던 邑落은 이 단계에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하겠다. 이 단계에 國 수준의 지역집단이 본격적으로 형성 되지 않았더라도 邑落 수준의 사회조직이 경주 주변권의 각 곡간지역에서 모습을 갖추었으리 라고 판단된다.

## 4. 斯盧國 형성 이후 단계

### 1) I 단계(표3 ; 지도3 ; 그림2~3)

필자는 앞서도 지적하였듯이 기원전 2세기 이전의 三韓지역 초기 國의 우두머리 무덤을 입증하는 무덤으로 다뉴동경 부장묘를 예시한 바 있다. 경주지역에서는 다뉴경부장묘로 울산방면의 주변지역에 위치한 입실리의 예가 있는데, 부장된 銅鉞, 銅戈 등의 형식으로 보아 다소 늦은 기원전 1세기 전반대에 속한다.

기원전 2세기대 마한지역에서는 다뉴경부장묘에서 청동제 무기와 함께 八珠鈴, 雙頭鈴, 竿頭鈴, 조합식 二頭鈴 등이 공반되어 그 祭司長의 성격을 확실히 하고 있다. 입실리 유적은 충남지역과 달리 청동방울 중 竿頭鈴만 공반되어 있는데, 정식발굴조사로 확인된 것이 아니어서 이들 일괄유물이 한 무덤에 부장된 것이 아닐 가능성도 전혀 배제 못하나, 斯盧國 형성을 고고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司祭王的 성격을 가진 國의 우두머리의 존재를 시사해주는 것이다.

기원전 1세기 전반대에 청동무기와 함께 竿頭鈴만 부장된 무덤으로 같은 울산방면의 경주 주변에 입실리의 예 이외에 죽동리의 예가 있다.(韓炳三 1987) 죽동리 무덤의 예 또한 일정지역 집단의 우두머리나 그에 버금가는 신분의 소유자가 묻힌 무덤으로 추정된다. 같은 경주권의 다른 지역에서 같은 시기에 이에 비견되는 國의 우두머리급으로 인정할만한 목관묘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주 이외의 인근지역에 비슷한 단계의 무덤으로는 대구지역에서 역시 竿頭鈴이 청동무기와 함께 부장된 신천동의 예가 있을 뿐이다.(尹容鎭 1990) 따라서 이 단계에 경주

권에서의 최고신분의 우두머리가 있는 중심취락은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울산 방면의 주변 동남 谷間에 있는 셈이 된다.

이것은 경주 울산방면 주변권에 전단계에는 확인되지 않은 확실한 중심취락이 형성되었음을 입증해주는 것이다. 그 중심적 기능이 울산방면의 곡간 주변권 지역에 한정하는 것인지 경주권 일대 전역에 걸친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 경주권 전역의 중심지라고 이해하기에는 지리적으로 다소 문제가 있는 바, 이 단계의 지역집단의 지리적 범위는 울산방면 주변권 지역에 한정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다른 곡간의 주변권, 즉 북부권의 안강방면, 서부권의 영천·모화방면, 남부권의 언양방면에 도 기원전 1세기대 전반의 首長墓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나 현재로서는 그 증거가 확인되지 못하고 있다. 비슷한 시기에 경주 중심권에서도 발견되지 않고 있다.

기원전 1세기 후반대에 이르면 積石木棺墓 대신 목관묘가 유행하고, 首長墓의 부장품에도 일정한 변화가 있게 된다. 종전처럼 청동방울 등의 儀器나 다뉴경은 부장되지 않고 중국 漢式銅鏡과 철기, 그리고 組合式牛角形把手付壺와 주머니壺 등의 古式瓦質土器가 부장된다. 이러한 변화의 動因은 서북한 지역의 漢郡縣 설치와 함께 그 지역의 유이민 집단의 來到와 교류 활동이다. 한편으로는 전단계의 在地的 요인도 무시 못하는 것임이 부장된 청동기와 토기가 이 지역의 독자적 형식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경주권에서 이 단계의 대표적인 것으로 경주 조양동 유적의 예를 들 수 있다. 앞선 단계의 입실리, 죽동리 등과 함께 울산방면의 동남주변권에 위치한 조양동에서는 목관묘와 木槨墓 50여기가 발굴조사되었는데 그 중 38호묘는 초기목관묘로서 前漢鏡 4매가 부장되는 首長墓로서 주목받고 있다.(崔鍾圭 1983) 앞선 시기에 首長의 標識遺物로 인식된 전통적인 多鈕鏡 대신에 새로 유입된 漢式鏡이 威勢品으로서 각광을 받게 된 것이다.

같은 기원전 1세기 후반대에 경주 북부 주변권의 안강지역에서 首長墓級의 청동기부장묘 예가 확인되었는데 안계리의 예가 바로 그것이다.(李健茂 1987) 안계리에서는 竿頭鈴과 함께 漢式鏡 수점이 수습되었는데, 이를 통하여 울산방면 이외의 경주 주변권에 또다른 지역집단의 首長墓가 있을 가능성이 확인된 것이다. 경주권 이외의 지역에서 비슷한 시기의 首長墓로서 세형동검 등의 청동제 무기와 각종 철기와 前漢鏡을 부장한 다호리 1호 목관묘가 있다.(李健茂外 1989) 따라서 경주 울산권과 안강권 이외에 앞서 소개한 대구와 함께 창원에서도 小國의 首長墓級 무덤이 확인된 셈이다.

기원후 1세기대 경주 최고의 목관묘는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경주 서쪽 영천방면의 주변

권에 속하는 사라리에서 발굴조사된 130호 무덤이다.(영남문화재연구원 1996; 朴承圭1999) 이 무덤에서는 전통적인 세형동검과 함께 동물형버클, 漢式仿製鏡과 70매의 板狀鐵斧가 부장되어, 당대 영남 최고의 부장품을 과시하고 있다.

이 유적의 발견으로 영천방면에 당대 최고 지역집단 혹은 國의 우두머리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문제는 이 세력가가 아우르는 지역적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에 있다. 바꾸어 말하면 경주권 전체를 아우르는 首長의 무덤인지 아니면 영천 방면에 국한된 首長의 무덤인지 여부인데, 현재로서는 단정하기가 어렵다.

기원후 1세기대에 이 사라리 130호묘에 비견되는 首長墓로 다량의 한식경과 仿製鏡이 부장된 금호강 유역의 영천 어은동의 예가 있다(藤田亮策 1922). 동일한 형식의 동경과 동물형버클이 동검, 동모, 동과 등의 청동무기와 함께 부장된 예로 대구에 비산동, 평리동의 예가 있다. 이들 경주, 영천, 대구의 무덤을 모두 國邑의 首長墓 무덤으로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를 통해 각 지역에 각각의 당대 小國이 형성되었다고 추정되고 있다. 이 단계에 금호강변과 형산강, 대천을 잇는 동서 하천 谷間 지대를 따라 상호 일정한 거리를 두고 문물 정보교류의 네트워크가 조성되어 각 지역 小國 형성의 기반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결국 기원전 1세기-기원후 1세기대의 목관묘의 최고급은 경주 서천, 남천, 북천 내 중심구역이 아닌 주변의 서부권, 동남권, 북부권의 주변구역에서 확인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조양동 38호, 사라리 130호 무덤은 아무래도 경주구역 전부를 통괄하기 보다는 각 공간지역을 범위로 한 지역집단을 커버하는 首長墓라고 추정된다. 조양동 38호묘가 있는 조양동 일대는 경주 동남권, 사라리 130호묘가 있는 사라리 일대가 경주 서부권의 중심취락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무덤을 각각 國邑의 首長墓라고 인정한다면 경주권에는 목관묘 단계에 각각 소국이 형성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그 소국의 범위는 대체로 직경 15km 범위의 공간적 범위를 갖는 셈이 된다. 그러나 기왕의 통설에 따르면 이러한 지리적 범위는 小國이 아니라 邑落의 공간적 범위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하였듯이 기원 전후한 시기의 영남권 혹은 辰弁韓의 國의 공간적 범위는 2-300년 이후의 그것과는 다르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후대의 邑落수준의 공간적 범위는 이 단계에 國의 그것에 해당하며 나아가 기원전후한 시기의 國의 성격 자체가 邑落사회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일 수 있는 것이다.

## 2) II 단계(표2 ; 그림4)

기원후 2세기대에 이르면 목관묘 대신 木槨墓가 유행하게 된다. 木槨墓라고 하지만 목곽 안에 목관을 안치한 흔적이 분명한 예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無官有槨의 경우도 있다.

경주권을 비롯한 영남지방에서 발견되는 木槨墓는 서북한 지역의 영향을 받아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나,(崔秉鉉 1992) 그 세부적 속성과 부장유물로 보아 이 지역의 앞선 목관묘의 전통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조양동 60호묘로 대표되는 경주지역의 초기 木槨墓를 木棺墓形 木槨墓로 부를 수도 있는 것이다.

木棺墓形 木槨墓는 土壙을 판 다음 木槨을 안치하고 토광과 목곽 사이 공간은 흙으로 뒤채움을 한 것으로 대체로 기원 2세기대로 편년이 된다. 이 단계의 특징적인 부장토기로는 목관묘 단계의 표지적인 주머니호와 조합식우각형과수부호를 대신하여 廣口臺付壺, 直口臺付壺, 화로형토기가 있다. 금속제 부장품 또한 세형동검을 비롯한 전통적인 한국식 청동기 대신 철검과 鐵銚 등의 철제무기가 다량 부장된다.

이러한 초기 木槨墓로서 조사된 경주권내 木槨墓로 조양동과 황성동 등지의 예가 있는데, 다량의 부장품을 부장하여 國의 首長墓라고 할만한 무덤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황성동발굴조사단 1991·1994; 李榮勳·孫明助 1994; 安在皓 1995; 車順哲 1995;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1996·1997) 인접지역인 포항 옥성리에서는 목관묘단계부터, 木槨墓, 積石木槨墓 이후 단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무덤이 축조되었는데,(영남문화재연구원 1998; 국립경주박물관 1999) 주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탁월한 무덤이 축조되는 시기가 바로 이 기원 2세기대의 초기 목곽묘단계이다. 나지구 78호 木槨墓가 대표적으로 길이 530cm, 폭 370cm 크기의 墓壙에 100여점의 鐵銚를 비롯한 다량의 철제유물과 토기가 부장되었다.

옥성리의 나지구 78호묘처럼 기원 2세기대 木槨墓단계에 경주권에서는 미처 확인되지 않은 國의 수장급에 상응하는 被葬者의 무덤이 경주권 인접지역에 확인되는 사실로 미루어 흥해권 지역에 일정 수준의 지역집단 또는 國이 형성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경주권 지역은 이러한 주변 집단의 압박을 받았고, 그에 대응하는 國이 있음을 인정한다고 하면 그에 상응하는 실력을 가진 首長의 무덤이 경주권내에서 확인되리라고 생각된다.

문제는 首長墓級의 무덤이 麻立干期 이후 신라 후기에 大陵園이 자리잡은 경주 1차중심권에 國畝의 중심지가 이 단계에 존재했는지 여부이다. 황남동과 인왕동 등지에서 이 단계의 무덤에 부장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瓦質土器가 확인되므로, 이 단계의 무덤은 틀림없이 있었

다.(具滋奉 1998) 그러나 후대의 木槨墓 내지 積石木槨墓에 의해서 파괴되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지만, 현재까지 고고학적 증거로 보면 기원 2세기에 斯盧國 전체를 아우르는 首長の 것이라고 인정할만 무덤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경주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중심취락이 현재의 중심권에 있다고 볼만한 증거가 아직 확보되지 않고 있다. 月城과 그 주변에 대한 발굴조사에 따르면 동 토성은 대체로 기원 3세기 이전에 축조되었다는 증거가 알려지지 않고 있는바,(李相峻 1997; 金洛中 1998) 여전히 초기 木槨墓단계에 경주 月城 주변은 그 중심지로서 부각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앞서 보듯이 영남지역의 2세기의 首長墓級 木槨墓는 완만한 구릉지에 입지하는 점을 보아 그 가능성이 적다할 수도 있다. 또한 있다하더라도 신라 도읍 중심지로서 후대의 王京유적에 의해 파괴되었을 가능성이 더 높다 하겠다. 그러므로 기원 2세기에 경주중심권에 斯盧國의 國邑 중심지가 형성되었는지 여부는 고고학적으로는 아직 판정보류상태에 있는 것이다.

기원 3세기 후반에 이르면 경주권 일대에 이른바 細長方形 木槨墓가 축조되기 시작한다. 이는 토광 평면의 폭과 길이가 1:3을 넘으며, 같은 토광내에 隔壁을 사이에 두고 副槨과 主槨이 함께하는 同穴 主副槨式으로, 그 초기 단계의 標識的인 토기로서 와질토기 말기형식과 함께 古式陶質土器가 있다.(李在賢 1995)

김해 등지에서는 비슷한 시기에 유행하는 木槨墓는 副槨을 따로 마련한 異穴主副槨式이라 하여 대조를 이루므로, 전자를 경주형, 후자를 김해형으로 구분한 바 있다. 학자에 따라서는 경주형을 신라식, 혹은 斯盧國式이라고도 한다.(申敬澈 1985; 윤형원 1998; 車順喆 1999; 李盛周 1998). 우선 큰 문제는 여러 학자들이 주장하는 바처럼 細長方形 木槨墓가 과연 경주권의 특징적인 墓制이며, 나아가 당시 斯盧國의 발전과 함께 주변지역으로 확대되는가 여부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확실한 예는 경주중심권의 황성동에서만 조사되고, 주변권에는 울산방면의 구정동과 죽동리, 영천방면의 사라리에서 조사된 바가 있다. 경주권을 벗어난 주변지역으로 울산 중산동과 다운동, 포항 옥성리, 경산 임당동 등지에도 동 細長方形 木槨墓가 분포한다.

그들 細長方形 木槨墓 중에 경주권의 구정동 2, 3호묘가 同 형식의 무덤으로 가장 이른다.(崔鍾圭 1995) 포항 옥성리의 경우 그 지역에서 현재까지 발견되는 同穴主副槨墓에서는 전형적인 경주식 高杯가 나와 그 연대는 앞서 구정동의 예보다 떨어지는 기원 4세기대 이후 것으로 추정된다. 인접한 울산 중산동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細長方形 同穴主副槨墓가 경주권에서 발생하여 주변지역으로 傳播되었다고 조심스럽게 추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주형 木槨墓로서 最大首長墓의 가장 이른 예로는 현단계로서는 역시 경주 구정동 木槨墓이다. 길이 6m의 대형 木槨墓에 다량의 鐵銼가 무덤 바닥에 깔려 있고, 갑옷부속이 副葬되었다. 구정동 무덤은 구릉 정상부에 위치하고 있어, 입지상으로 보아 우월한 위치에 있음에 분명하며, 같은 구릉 기슭에는 그보다 낮은 지위에 있다고 판단되는 무덤이 자리하고 있다. 학자에 따라서는 이를 高塚의 始原型으로서 自然墳丘高塚으로 주장하기도 한다.

앞선 단계에 탁월한 무덤을 가졌던 포항 옥성리에서는 이 단계에 속하는 무덤은 조사되었지만, 구정동에 비견할만한 무덤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경주권에서 바로 인접한 포항권에 뒤지지 않는 木槨墓가 이 단계에서 출현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같은 영남지역에서 부장품으로서 구정동 무덤에 비교 우위에 있는 예로는 경주 인접지역을 벗어나 김해 대성동 29호 묘를 들 수 있겠다. 길이 750cm, 폭 560cm의 장방형 墓壙에 100점 정도의 板狀鐵斧를 부장하고 수십개의 토기 항아리가 부장되어, 이 지역 최초의 王墓라고 주장되기도 한다.(李海蓮 1993)

문제는 신라 國邑의 중심지로서 大陵園이 위치한 경주 중심권에 3세기대에 首長墓級 경주형 細長方形 木槨墓가 축조되었는가 여부이다. 학자에 따라서는 이 木槨墓를 경주지방의 삼국사기 古記錄에 동해안을 통해 경주에 진출한 것으로 알려진 昔脫解 집단의 출현과 결부시키기도 한다.(金榮珉 1995) 그렇다고 한다면 여전히 묘제의 중심지는 기원전 목관묘 단계부터 木槨墓, 細長方形 木槨墓에 이르기까지 울산방면의 주변권에 경주의 중심세력집단이 지속적으로 입지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단계까지도 지금까지 확보된 고고학자료로만 볼 때 여전히 남천, 북천, 서천 안의 경주중심권에 斯盧國의 國邑 중심지가 형성되었으리라는 주장을 하기 어렵다. 그러나 경주 중심권의 月城路 가-29호의 경우처럼, 전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확실하지 않지만, 同穴主副槨式 木槨墓의 遺構에 동단계에 속하는 와질토기 부장유물이 확인된 바 있어 그 가능성을 부인할 수도 없다.

다음 積石木槨墓 단계에 斯盧國은 고대 신라로 발전하여 대내적으로 왕권체제를 확립하고, 대외적으로 주변 小國에 대한 간접지배를 확립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상황과 맞물리는 고고학적 증거로서 積石木槨墳으로 이루어진 당시 왕의 무덤군, 大陵園이 경주 중심지에 조영되고, 왕실의 거성인 月城이 이 단계에 분명히 축조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積石木槨墓의 祖型이 細長方形 木槨墓라는 최근의 주장이 수용될 수 있다면, 그리고 포항 옥성리와 울산 중산리의 동일한 형식의 木槨墓가 경주로부터 전파된 것이라고 한다면 首長墓級의 무덤 또한 大陵園 지역인 경주중심권에 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이다.

## 5. 결 론

지금까지 경주권에 청동기시대부터 原三國時代에 걸쳐 首長墓級 무덤을 통하여 살핀 斯盧國의 공간적 동향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무문토기 前中期 단계의 지식묘사회에 경주권에는 각 곡간지역별로 취락이 곳곳에 형성된 것이 확인된다. 그렇지만 이들 경주지역의 마을이 이른바 중심취락이 있는 邑落을 형성한 것은 무문토기 후기단계 이후로 이해된다. 이 단계에 주변지역으로부터의 모종의 압력을 받거나, 자체내의 관개농경체제 등의 協業體制를 유지하기 위하여 마을간의 결속력이 강화된 것이다.

보다 확실한 중심취락체제는 기원전 1세기 전반대에 와서이다. 이 때에 울산방면으로 입실리, 죽동리 등지의 예로 보아 首長이 출현한 것이 확인되는 바, 다만 이들 首長은 울산방면의 곡간지대만 통합한 것으로 이해된다. 아직 경주권 전체를 아우르는 首長의 무덤은 확인되지 않았다.

기원 1세기대에는 최고의 首長墓는 사라리에서 확인되는데, 이 사라리 무덤의 주인공이 경주권 전체를 통합한 首長이라고 볼 적극적인 증거가 없다. 그렇지만 이정도의 무덤은 영남 전지역을 통틀어 가장 우월하기 때문에 國의 首長墓로 보아도 무리가 없겠다. 따라서 영천방면을 직접적인 관할 영역으로 할 정도의 國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기원 2세기 이후의 木槨墓단계에는 오히려 경주권 보다 그 인접지역에 더 탁월한 首長墓가 확인되는 바, 이들 인접 首長墓를 통하여 경주권은 보다 외부적인 압력을 강하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하여 경주권 전체를 결속할 首長의 출현과 중심 國邑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는바, 현재까지 경주 중심권에서 그러한 首長의 무덤이 확인되지 않았다.

기원 3세기대에 이르면 경주형 木槨墓가 경주권 일대에서 확인되어, 斯盧國의 일정한 발전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특히 경주식 積石木槨墳의 전단계로서 이 때에 斯盧國은 경주 중심지에 月城을 축조하고 발전된 國의 체제를 갖춘 것으로 짐작된다.

기본적으로 경주권 지역의 小國 성장과 발전을 충분히 이해할만큼 고고학자료가 확보되지 않고 있다. 4세기 이후 적석목곽분 단계의 고분자료에 비해 그 이전의 청동기시대-초기철기시대-원삼국시대의 무덤유적 숫자는 오히려 다른 지역보다 열세이다.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글에서 많은 억측이 시도되었는 바, 많은 질정을 바란다.



<표1> 경주권 지석묘 유적 목록

번호	유 적 명	수량	문헌	번호	유 적 명	수량	문헌
1	단구리 지석묘군 1	6	3	31	모아리 지석묘군	7	3
2	단구리 지석묘군 2	2	3	32	왕신리 지석묘군	10	6
3	단구리 지석묘군 3	3	3	33	왕신리 지석묘	1	6
4	노당리 지석묘군 1	2	3	34	화산리 지석묘군	2	3
5	노당리 지석묘군 2	5	3	35	동산리 지석묘군	3	3
6	노당리 지석묘군 3	3	3	36	동산리 지석묘	1	3
7	다산리 지석묘군 1	1	3	37	도리 지석묘	1	3
8	다산리 지석묘군 2	1	3	38	도리 지석묘군	8	3
9	다산리 지석묘군(밭굴)	4	5	39	심곡리 지석묘	1	3
10	안계리 지석묘군	3	3	40	아화리 지석묘군 1	2	3
11	하곡리 지석묘	1	3	41	아화리 지석묘군 2	4	3
12	안강리 지석묘군	3	6	42	아화리 지석묘군 3	7	3
13	인동리 지석묘군	6	6	43	도계리 지석묘군 1	4	3
14	국당리 지석묘군 1	2	6	44	서오리 지석묘군	2	3
15	국당리 지석묘	1	6	45	천촌리 지석묘군	2	3
16	국당리 지석묘군 2	3	3	46	천촌리 지석묘	1	3
17	근계리 지석묘 1	1	3	47	도계리 지석묘군 2	7	3
18	근계리 지석묘 2	1	3	48	신평리 불지 지석묘 1	1	3
19	갑산리 지석묘 1	1	3	49	신평리 불지 지석묘 2	1	3
20	갑산리 지석묘 2	1	3	50	신평리 지석묘군		3
21	대동리산전동지석묘군	7	3	51	신평리 지석묘 1	1	3
22	대동리 지석묘	1	6	52	신평리 지석묘 2	1	3
23	검단리 지석묘군 1	3	3	53	송선리 지석묘 1	1	3
24	검단리 지석묘 1	1	3	54	송선리 지석묘 2	1	3
25	검단리 지석묘군 2	3	6	55	송선리 지석묘군	16	3
26	검단리 지석묘 2	1	3	56	조전리 지석묘	1	3
27	사방리 지석묘군	5	3	57	조전리 지석묘군	7	3
28	모서리 지석묘군 1	2	6	58	용명리 지석묘군	3	3
29	모서리 지석묘군 2	5	6	59	용명리 지석묘	1	3
30	오야리 지석묘군	14	3	60	건천리 지석묘군 1	4	3

번호	유 적 명	수량	문헌	번호	유 적 명	수량	문헌
61	건천리 지석묘군 2	11	3	93	망성리 지석묘 2	1	1
62	금척리 지석묘	1	3	94	망성리 지석묘 3	1	3
63	방내리 지석묘 1	2	4	95	망성리 지석묘 4	1	3
64	방내리 지석묘 2	4	4	96	화곡리 지석묘 1	1	3
65	광명동 지석묘군 1	3	3	97	화곡리 지석묘 2	1	3
66	광명동 지석묘군 2	4	3	98	화곡리 지석묘 3	1	3
67	광명동 지석묘군 3	4	3	99	용장리 지석묘 1	1	3
68	광명동 지석묘	1	3	100	용장리 지석묘 2	1	3
69	광명동 지석묘군 4	2	3	101	부지리 지석묘군	1	3
70	광명동 지석묘군 1 5	8	3	102	덕천리 지석묘 1	1	3
71	화천리 지석묘군	12	3	103	덕천리 지석묘 2	1	3
72	두류리 지석묘군	2	3	104	상신리 지석묘군	1	3
73	남사리 지석묘군	2	6	105	안심리 암각화 지석묘	1	3
74	소현리 지석묘 1	1	6	106	안심리 지석묘 1	1	3
75	소현리 지석묘 2	1	6	107	안심리 지석묘 2	1	3
76	상구리 지석묘군	4	3	108	월산리 지석묘	1	3
77	상구리 지석묘	1	3	109	월산리 지석묘군		3
78	충효동 지석묘 1	1	2	110	명계리 지석묘 1	1	3
79	석장동 지석묘군	1	3	111	명계리 지석묘 2	1	3
80	충효동 지석묘 2	1	3	112	남산동 지석묘군	5	3
81	충효동 지석묘 3	1	3	113	평동 지석묘	1	3
82	효현동 지석묘군	3	2	114	동방동 지석묘	1	3
83	신당리 지석묘	1	3	115	도지동 지석묘군 1	2	3
84	용강동 지석묘 1	1	1	116	도지동 지석묘군 2	3	3
85	용강동 지석묘 2	1	3	117	도지동 지석묘	1	3
86	용강동 지석묘군		3	118	도지동 지석묘군 3	4	3
87	구황동 지석묘	1	3	119	조양동 지석묘	1	3
88	구황동 지석묘군 1	4	3	120	조양동 지석묘군	3	3
89	구황동 지석묘군 2						

(참고문헌)

1. 國立文化財研究所, 『전국문화유적총람』3집CD-ROM, 1997
2.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年報 5』, 1994
3. 國立慶州博物館, 『慶州遺蹟地圖』, 1997
4.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건천휴게소신축 발굴조사보고서』, 1995
5. 國立慶州博物館·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慶州 多山里支石墓』, 1994
6. 1) 國立慶州博物館, 『慶州遺蹟地圖』, 1997  
 2)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慶州北部地域地表調査報告書 I』, 1997

<표2> 경주권 무문토기 주거지 유적목록

번호	유 적 명	수량	문헌	번호	유 적 명	수량	문헌
1	사라리 주거지	4	1	6	교동 재매정지	2	6
2	석장동 주거지	5	2	7	천군동 피막주거지	5	7
3	황성동 주거지	7	3	8	월산리 주거지	27	8
4	손곡동 경마장부지 주거지	2	4	9	마동 주거지	?	9
5	물천리 주거지	3	5	10			

(참고문헌)

1. 嶺南埋藏文化財研究院, 『慶州 舍羅里古墳群 發掘調査現場說明會資料』, 1996
2. 東國大學校 慶州캠퍼스博物館, 『錫杖洞 遺蹟』, 1996
3. 隍城洞遺蹟 發掘調査團, 『慶州 隍城洞 遺蹟 第1次 發掘調査報告』, 1991
4.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慶州競馬場敷地(A지구)發掘 現場說明會資料』, 1999
5. 韓國文化財保護財團, 『競馬場 豫定敷地 C-1發掘調査 報告書』, 1999
6.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재매정지』, 1996
7.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國立慶州博物館, 『慶州 千軍洞 避幕遺蹟』, 1999
8.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월산리 화물주차장예정부지-현장설명회자료』, 1999
9. 韓國文化財保護財團, 『경주시 마동 769번지일대 임대아파트 신축부지 시굴조사약보고서』, 1998

<표4> 경주권 목관묘 · 목곽묘 유적목록

무덤형	번호	유적명칭	수량	참고문헌
적석목관묘	1	입실리	1	1
	2	죽동리	1	2
	3	조양동 5호	1	3
	4	구정리	1	4
목관묘	1	안계리	1	5
	2	사라리	3	6
목곽묘	1	조양동	13	3
	2	황성동 (1)	22	7
	3	구정동	3	8
	4	구어리	24	9
	5	죽동리	3	10
	6	황성동 (2)	9	11
	7	사라리	78	12

(참고문헌)

1. 藤田亮策外, 「慶州郡外洞面入室里の遺蹟と發見遺物」, 『南朝鮮に於ける漢代の遺蹟』, 1922
2. 韓炳三, 「月城 竹東里出土 靑銅器 一括遺物」, 『三佛 金元龍教授停年退任紀念論叢』, 1987
3. 崔鍾圭, 『三韓 考古學 研究』, 서경문화사, 1995
4. 1) 金元龍, 「慶州 九政里 出土 金屬併用期 遺物에 대하여」, 『歷史學報』1, 1952  
 2) 李白圭, 「慶州 九政洞出土 一括遺物」, 『박물관신문』 72호, 국립중앙박물관, 1977  
 3) 金載元, 「夫餘·慶州·燕岐 出土 靑銅遺物」, 『震亨學報』25·26·27, 1964
5. 國立中央博物館, 『韓國의 靑銅器文化』, 1992
6. 1) 嶺南埋藏文化財研究院, 「慶州 舍羅里古墳群 發掘調査」, 현장설명회자료, 1996  
 2) 嶺南埋藏文化財研究院, 「慶州 舍羅里古墳群 發掘調査 -130호분을 중심으로-」, 현장설명회자료, 1996
7. 李健茂·金弘柱, 「慶州 隍城洞 遺蹟 發掘報告」, 『國立博物館古蹟調査報告』제17책, 1985
8. 崔鍾圭, 「慶州 九政洞一帶發掘調査」, 박물관신문 제139호, 1983
9. 1) 嶺南埋藏文化財研究院, 「九於里古墳群 現場說明會 資料集」, 1998

- 2) 河鎮鎬·李在興, 「慶州 九於里古墳群」, 『全國 歷史學大會 發表要旨』, 1999
10. 國立慶州博物館, 『竹東里 古墳群』, 1998
11. 1) 李榮勳·孫明助, 「慶州隍城洞新興住宅建立敷地內 遺物出土地緊急收拾發掘」, 『國立慶州博物館年報』, 1994
- 2) 國立慶州博物館, 「慶州 隍城洞古墳群 發掘調查」, 『국립경주박물관연보』, 1994
- 3)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경주 황성동634-1번지 고분군」, 『文化遺蹟發掘調查報告 - 긴급 발굴조사보고서Ⅲ-』, 1990
12. 1) 河鎮鎬, 「慶州市 舍羅里古墳群發掘調查 概報」, 『신라 고고학의 제문제』, 전국학술대회 발표요지, 한국고고학회, 1996
- 2) 嶺南埋藏文化財研究院, 「慶州 舍羅里古墳群 發掘調查」, 현장설명회자료, 19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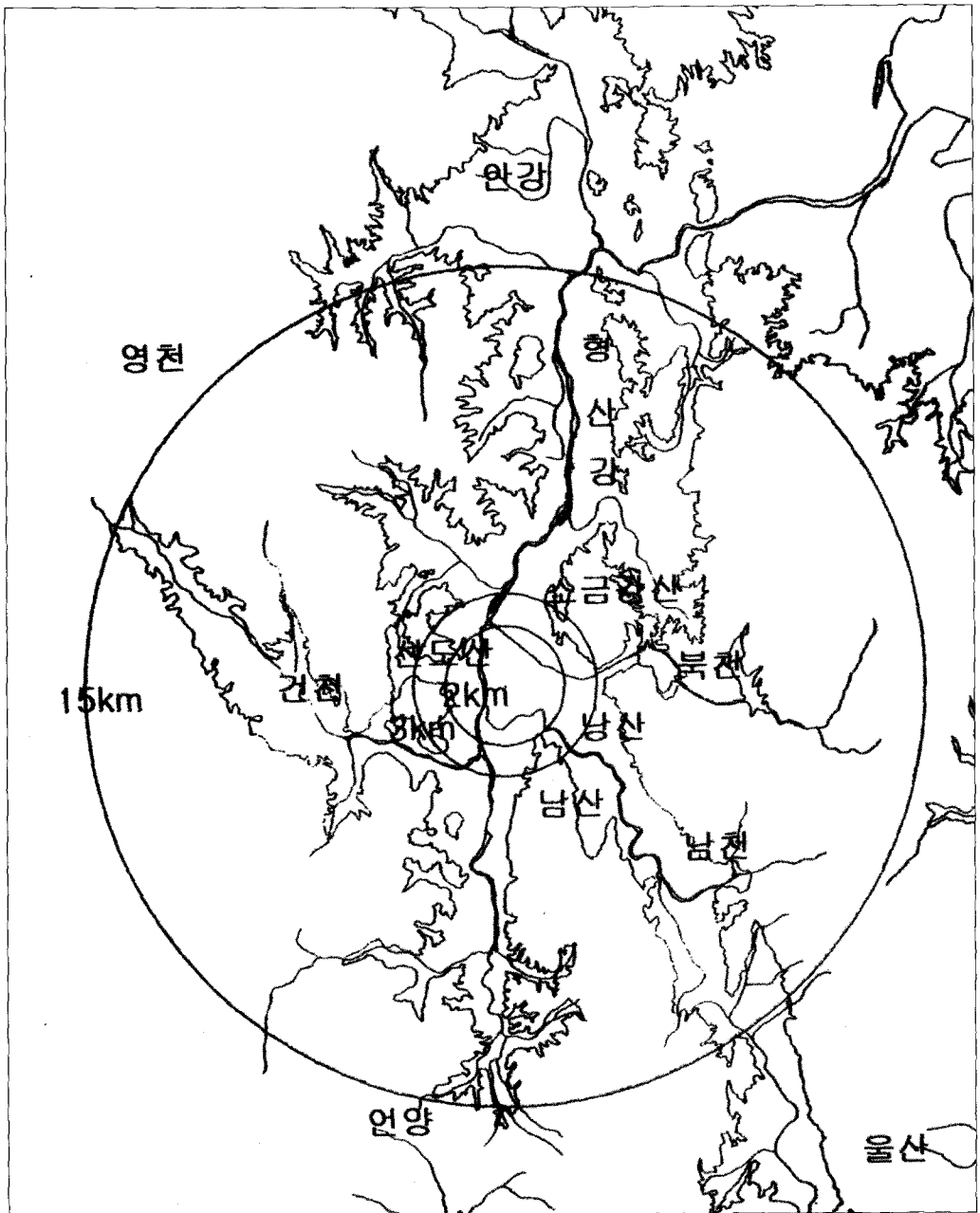
## <참고문헌>

- 강종훈, 『신라상고사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 慶南大學校博物館·密陽大學校博物館, 「울산 무거동 옥현유적 현장설명회 자료집」, 1999
- 慶尙北道文化財研究院, 「상주 병성동고분군 발굴조사 현장설명회 자료」, 2000
-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월산리 화물주차장 예정부지 현장설명회자료」, 1999
- 國立中央博物館, 『고고유물로 본 한국 고대국가의 형성』, 통천문화사, 1998
- , 『韓國의 靑銅器文化』, 범우사, 1995
- 고려대학교 매장문화재 연구소, 「충남 논산 마전리 발굴조사」 현장설명회자료, 1999
- 權五榮, 「斯盧6村의 位置問題와 首長의 性格」, 『신라문화』14, 경주 신라문화연구소, 1997
- , 「三韓의 '國' 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 , 「中西部地方의 初期鐵器文化와 '衆國' 의 대두」, 『釜山史學』 31, 1996
- 金洛中, 「新羅 月城의 성격과 변천」, 『한국상고사학보』27, 1998
- 金杜珍, 「三韓 別邑社會의 蘇塗信仰」, 『한국고대의 국가와 사회』, 역사학회, 1985
- 金炳坤, 「新羅 王權의 成長과 支配理念의 研究」, 동국대 박사학위논문, 2000
- 金榮珉, 「嶺南地域 三韓後期文化의 特徵과 地域性-洛東江 東西岸地域 比較를 中心으로」, 부산대 석사학위논문, 1996
- 金龍星, 『新羅의 高塚과 地域集團-大邱·慶山의 例』, 춘추각, 1998
- 金元龍, 「慶州 九政里 出土 金屬併用期 遺物에 대하여」, 『역사학보』1, 1952
- 金貞培, 『韓國古代의 國家起源과 形成』, 고려대학교출판부1986,
- , 「초기국가의 성격」, 『한국사』4, 국사편찬위원회, 1997
- 金載元·尹武炳, 「夫餘·慶州·燕岐 出土 靑銅遺物」, 『진단학보』25·26·27, 1964
- 金鉉俊, 『청동기시대 취락의 입지조건을 통해서 본 생업연구-출토유물을 중심으로』, 한양대 석사학위논문, 1996
- 金亨坤, 「新羅式 土壙木槨墓의 檢討」, 『창원사학』 3, 1997
- 文昌魯, 「三韓時代 邑落의 巨帥와 그 政治的 成長」, 『한국고대사연구』 12, 1997.
- 安在皓, 「南韓 無文土器의 編年-영남지방의 자료를 중심으로-」, 경북대 석사학위논문, 1996
-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慶州 乾川邑 雲帶里 羅王臺 試掘略報告書」, 2000
- 嶺南大學校博物館, 「蔚山鳳溪里遺蹟-현장설명자료」, 1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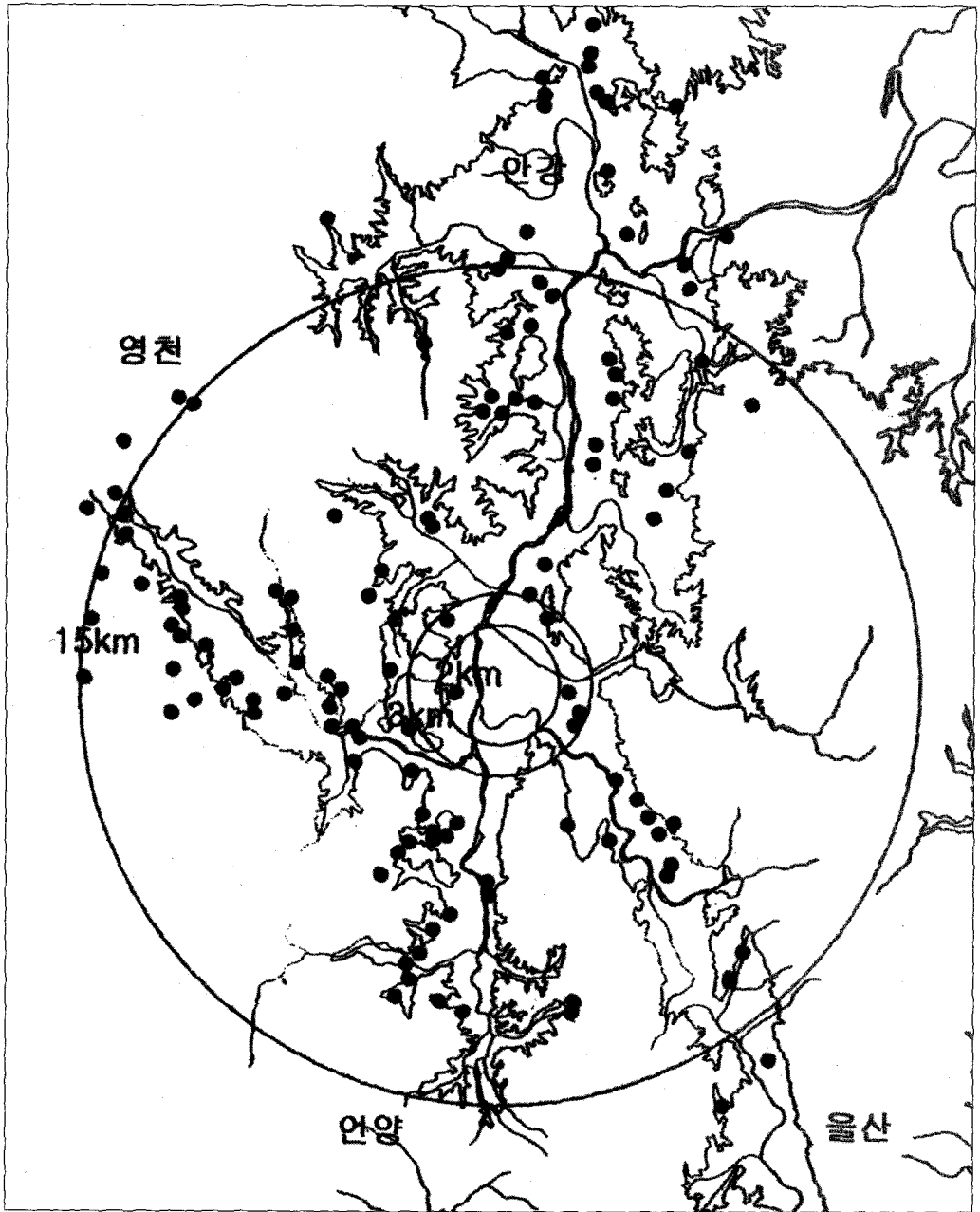
- 嶺南埋藏文化財研究院, 「慶州 舍羅里古墳群發掘調査-130호분을 중심으로-, 현장설명회자료, 1996
- · 浦港市, 『浦港 玉城里 古墳群 I · II』, 1998
- 尹容鎭, 「韓國青銅器文化研究-大邱平里洞出土一括遺物檢討-, 『韓國考古學報』10 · 11, 1981
- 尹炯元 · 朴文洙, 『慶州 竹東里 古墳群』, 국립경주박물관, 1998
- 李健茂, 「傳月城 安溪里出土一括遺物」, 『菊隱 李養善寄贈 文化財』, 국립경주박물관, 1987
- 李健茂外, 「昌原 茶戶里遺蹟 發掘進展報告 I」, 『考古學誌』1, 1989
- , 「昌原 茶戶里遺蹟 發掘進展報告 II」, 『考古學誌』3, 1991
- , 「昌原 茶戶里遺蹟 發掘進展報告 IV」, 『考古學誌』7, 1995
- 李白圭, 「慶州 九政里出土一括遺物」, 『박물관신문』 72호, 국립중앙박물관, 1977
- 李相俊, 「慶州 月城의 변천과정에 대한 小考」, 『영남고고학』21, 1997
- 李盛周, 「木棺墓에서 木槨墓로」, 『1C-3C 경주지역의 유적과 문화』, 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 16회 학술발표회의, 1996
- , 「蔚山 中山里遺蹟 發掘을 통하여 본 新羅墓制의 起源」, 『제1회 영남고고학회 학술발표회 발표 및 토론요지』, 1992
- 李松來, 「복합사회의 발전과 지식묘문화의 소멸」, 제22회 한국상고사학회 학술발표회 요지, 1999
- 李在賢, 「嶺南地域 木槨墓에 대한 研究」, 부산대 석사학위논문, 1994
- 李鍾旭, 『新羅國家形成史』, 일조각, 1982
- , 『한국초기국가발전론』, 새문사, 1999
- 李清圭, 「國의 形成과 多紐鏡副葬墓」, 『선사와 고대』14, 2000
- , 「南韓地方 無文土器文化의 展開와 孔烈土器文化의 位置」, 『한국상고사학보』1, 1988
- , 「嶺南地方 青銅器文化의 展開」, 『영남고고학』21, 1997
- 李海蓮, 「金海 大成洞 29號墳에 관한 研究- 洛東江流域의 出現期古墳의 樣相」, 경성대 석사학위논문, 1993
- 李賢惠, 「三韓의 國邑과 成長에 대하여」, 『역사학보』69, 1976
- , 『三韓社會形成過程研究』, 일조각, 1984
- 李炯佑, 『新羅初期國家成長史研究』, 영남대학교출판부, 2000
- 李弘鍾, 『청동기사회의 토기와 주거』, 서경문화사, 1996

- 李熙濬, 「新羅의 成立과 成長過程에 대한 考察: 考古·歷史地理的 接近」, 한국고고학전국대회 발표 요지, 1996
- , 「4-5세기 新羅의 考古學的 研究」,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8
- 全德在, 『新羅六部體制研究』, 일조각, 1996
- 全北大學校博物館, 「龍潭댐 水沒地區內 文化遺蹟 發掘調査(3차) 현장설명회 자료집」, 2000
- 鄭仁盛, 「洛東江 流域圈의 細形銅劍文化」, 『영남고고학』22, 1998
- 曹永鉉, 「金陵 松竹里遺蹟 發掘調査」, 『제 17회 한국고고학 전국대회 발표요지』, 1993
- 朱甫暉, 『新羅 地方統治體制的 整備過程과 村落』, 신서원, 1998
- 車順喆, 「同穴主副槨式 木槨墓研究: 洛東江東岸地域을 中心으로」, 경성대 석사학위논문, 1999
- 崔夢龍外, 『慶州 金丈里無文土器遺蹟-土器類에 대한 考察』, 서울대학교박물관, 1999
- 崔秉鉉, 『新羅古墳研究』, 일지사, 1992
- 崔鍾圭, 『三韓 考古學 研究』, 서경문화사, 1995
- 韓炳三, 「月城 竹東里出土靑銅器一括遺物」, 『三佛金元龍教授停年退任紀念論叢』, 1987
- 황상일·윤순옥, 「대구분지의 선사 및 고대 인간생활에 미친 Holocene 자연환경변화의 영향」, 『한국고고학보』 41, 1999
- 황성동유적발굴조사단, 「경주 황성동유적 발굴조사개보」, 『영남고고학』 8, 19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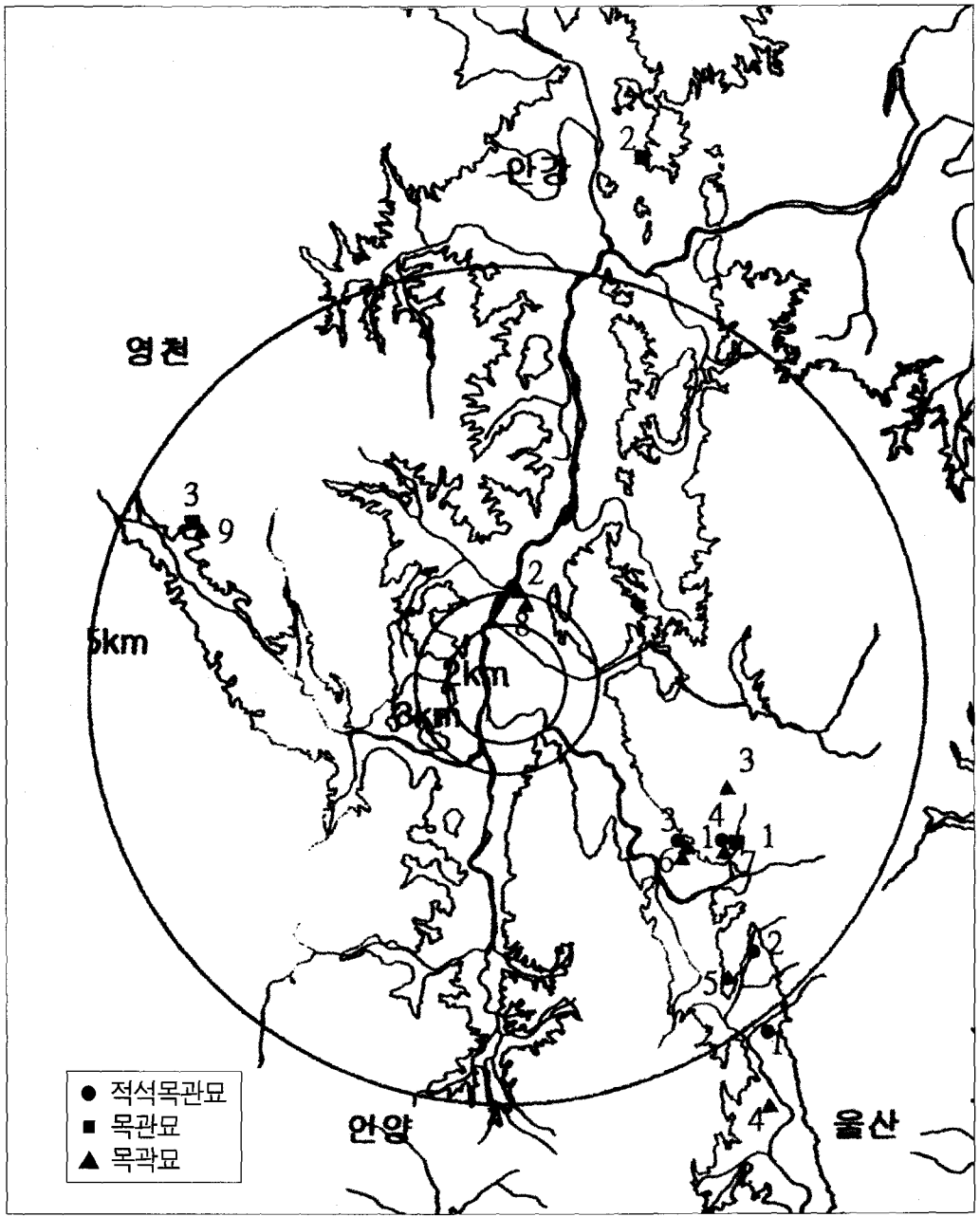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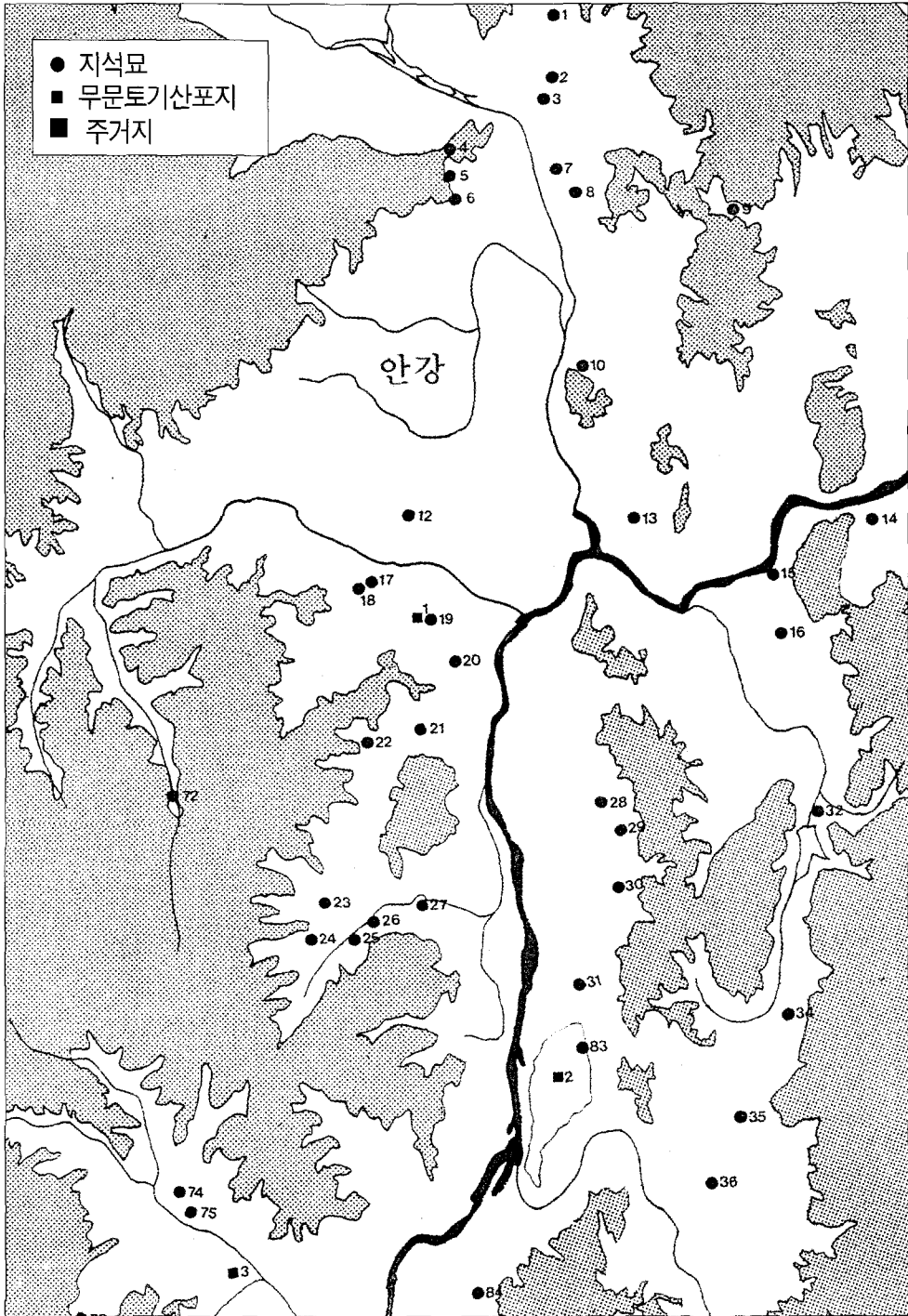
지도 1. 경주권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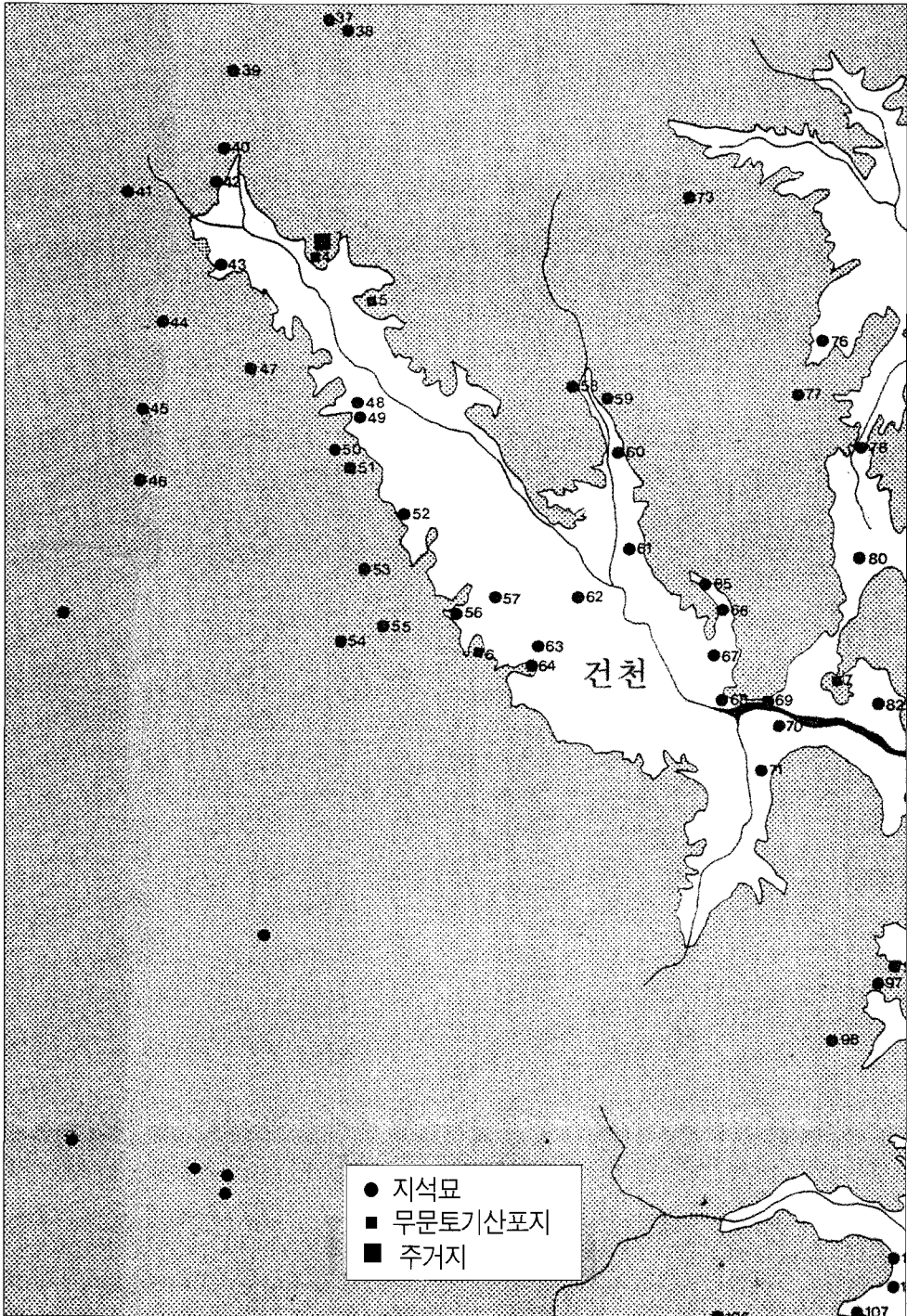
지도 2. 경주권 지석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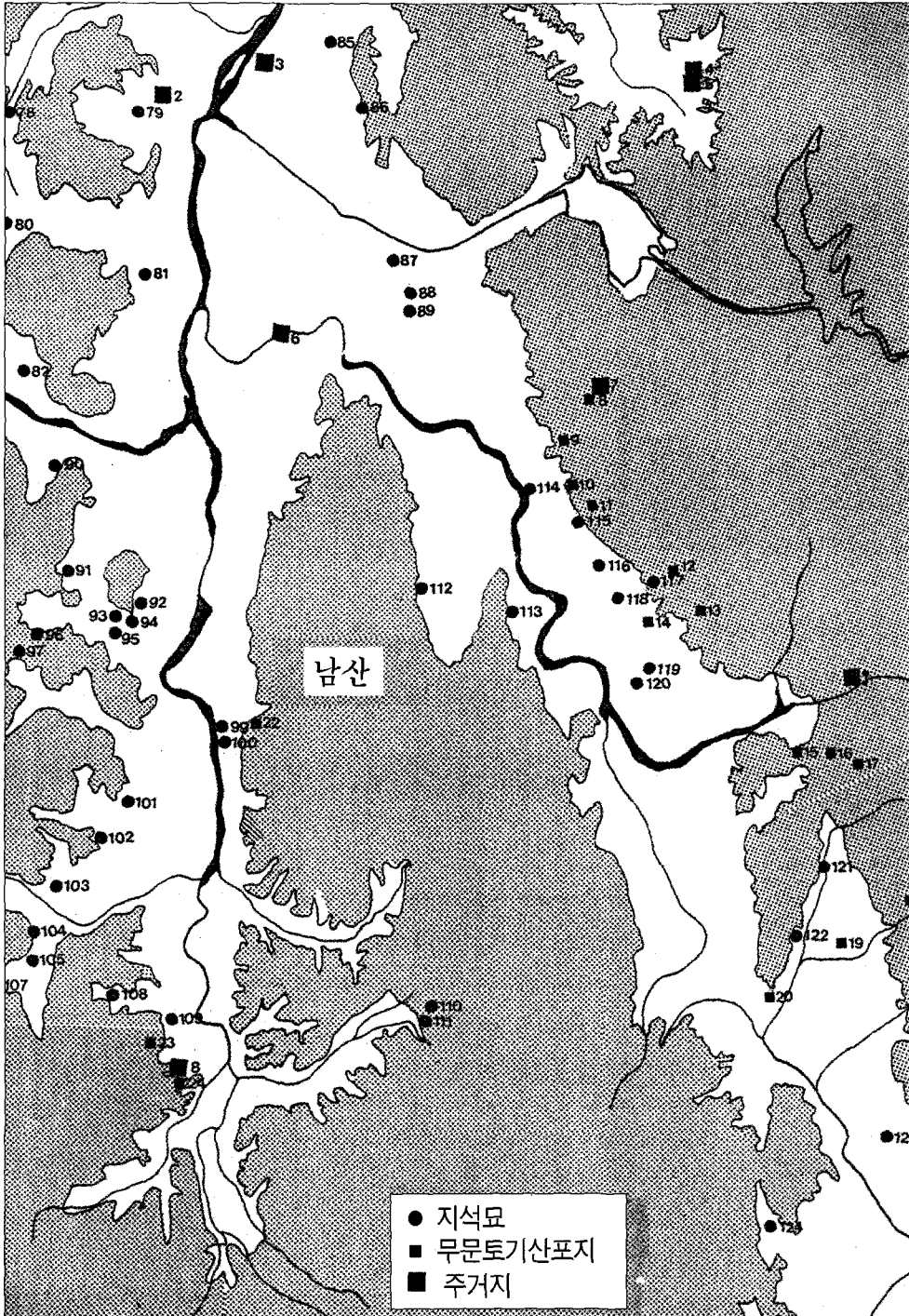
지도 3. 경주권 목관묘·목곽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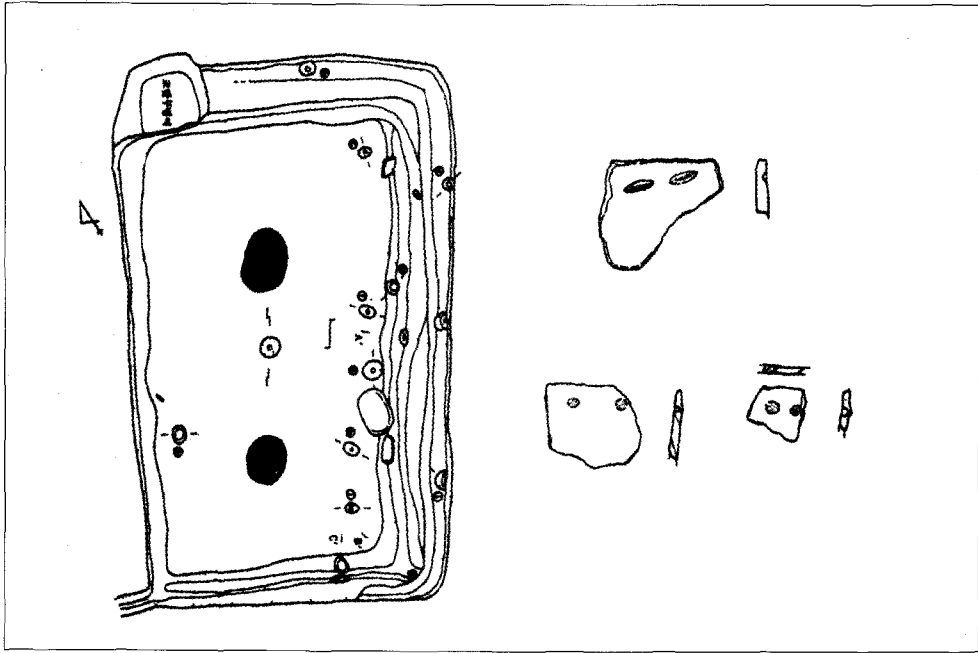
지도 4. 경주권 북부 무문토기유적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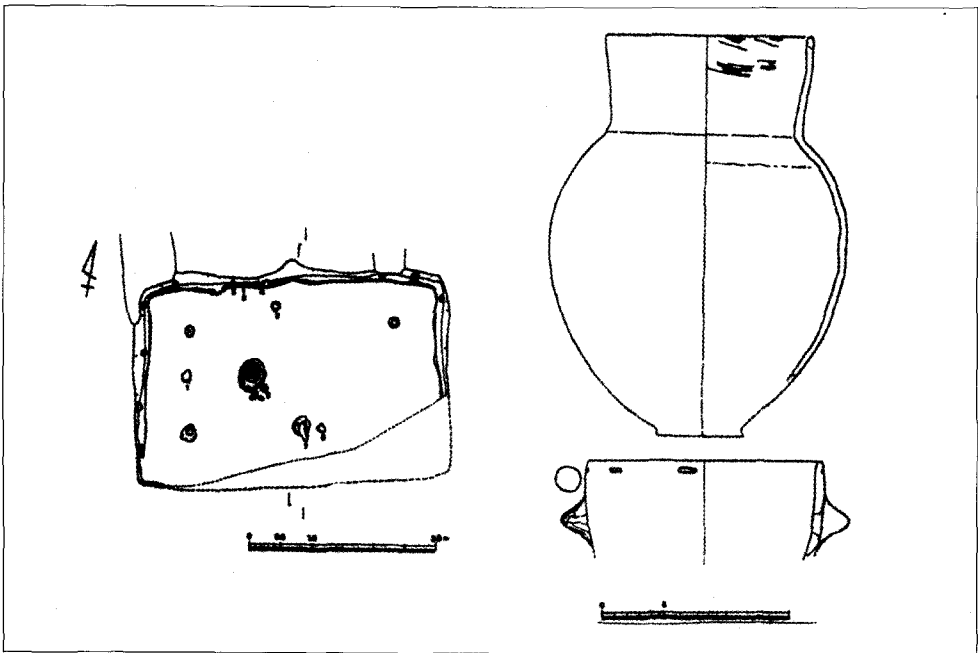
지도 5. 경주권 서부 무문토기유적 분포



지도 6. 경주권 남부 무문토기유적 분포



(1) 천군동 피막주거지와 출토유물



(2) 석장동 주거지와 출토유물

그림 1. 사로국 형성 이전 단계의 유적·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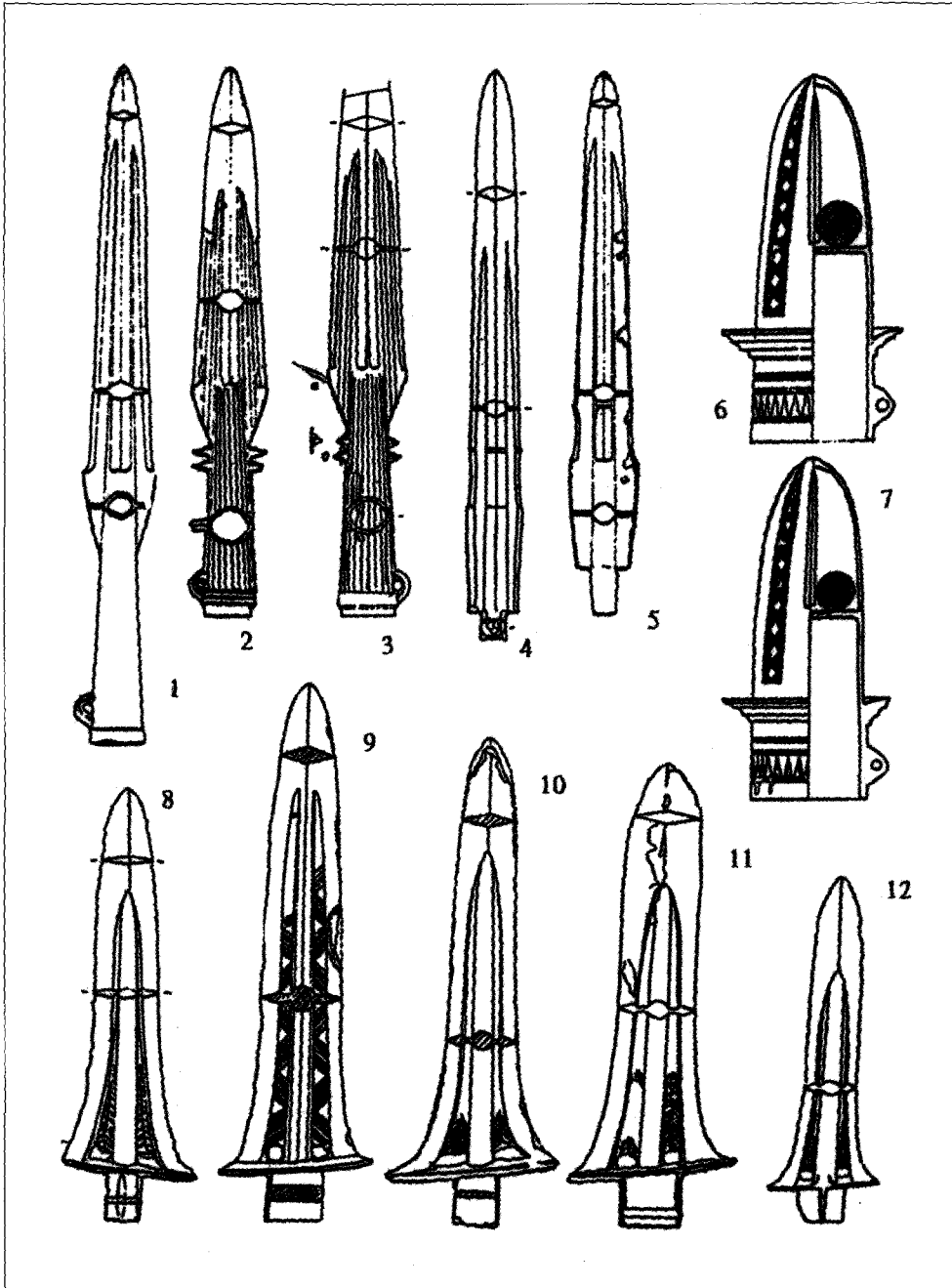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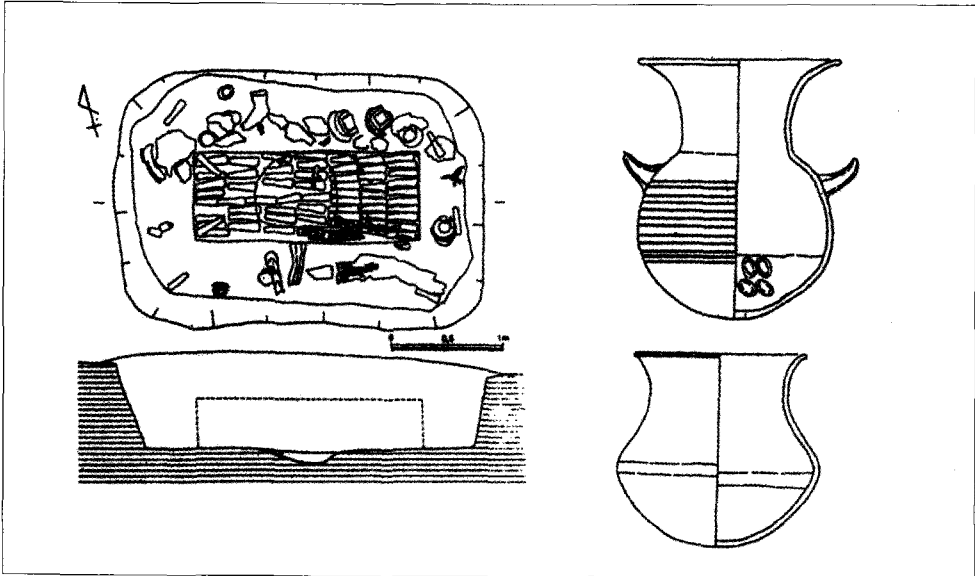
그림 2. 적석목관묘단계 유물

입실리무덤유물 - 1, 2, 5, 11,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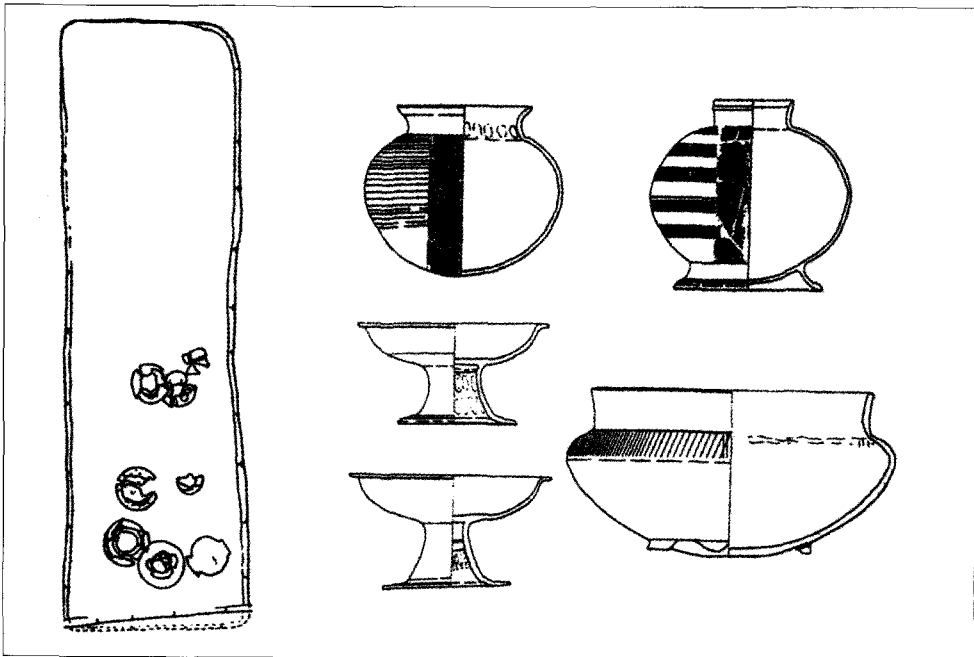
죽동리무덤유물 - 3, 4, 6, 7, 8

구정동무덤유물 - 9, 10





(1) 사라리 130호 무덤과 무장유물



(2) 황성동 무덤과 부장유물

그림 3. 목관묘·목곽묘 유적·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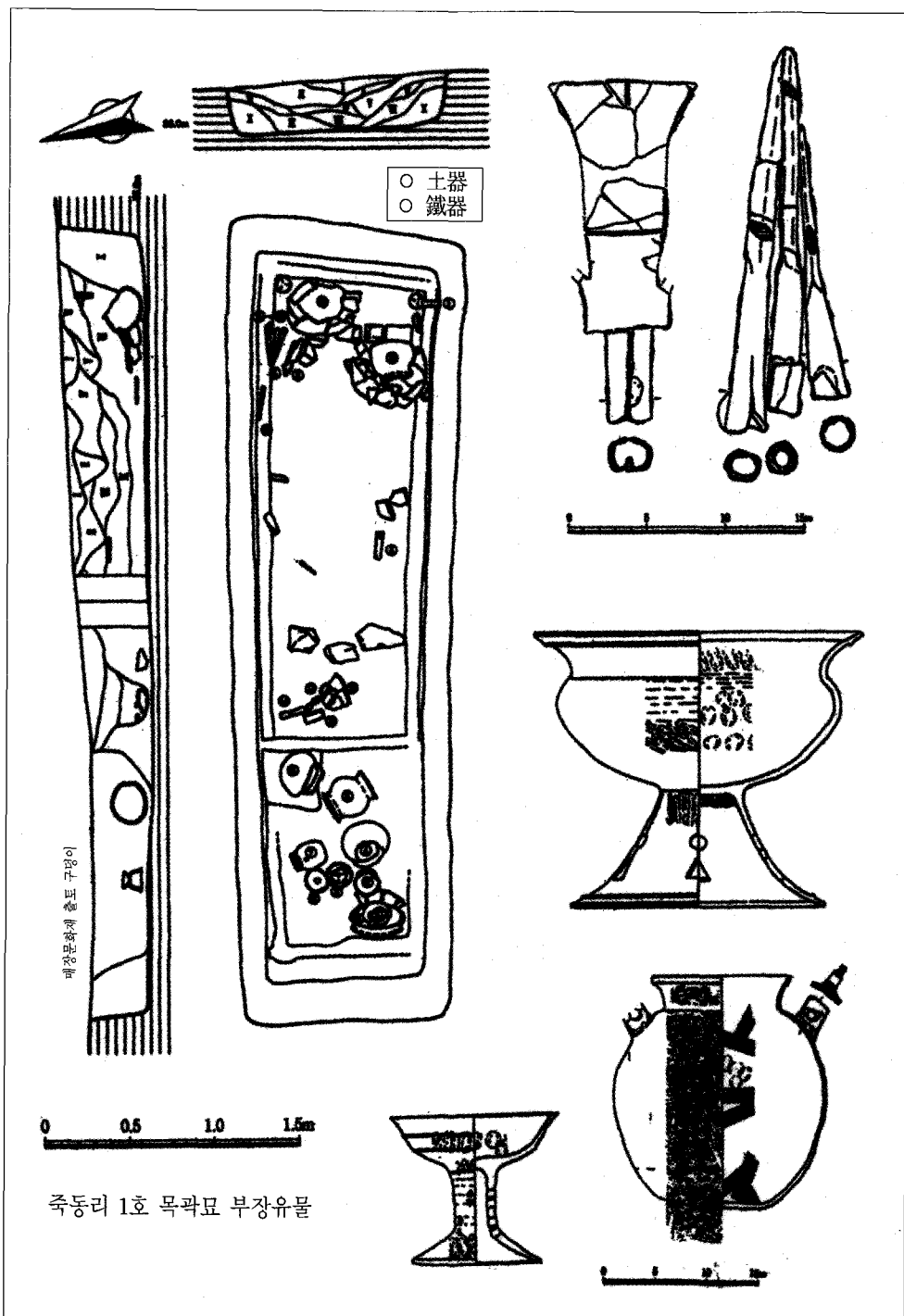


그림 4. 경주형 목곽묘 유적·유물